

정치의 문학화, 문학의 정치화

-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탄생을 중심으로* -

이 영 립

- | | |
|------------------------|-----------------|
| I. 머리말 | IV. 권력과 문학의 변증법 |
| II. 사적 후원에서 공적 후원으로 | V. 맺음말 |
| III.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설립과 성격 | |

I. 머리말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예술가들은 경제적 자립을 추구해왔다. 그러한 현상은 꾸준히 확산되어 오늘날에는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술작품들이 보조금이나 주문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입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나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종종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다.

예술에 대한 엘리트층의 열망은 역사상 모든 문명에서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지만, 예술 후원을 의미하는 ‘메세나’(mécénat)라는 용어가 유래하고 뚜렷한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17세기 프랑스에서다. 유럽에서 중세 이래 예술작품의 후원자이자 주문자는 가톨릭 교회였다. 그러나 가톨릭에서 예술작품은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장식 수단에 불과했다. 정치 지배층도 예술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했다.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군주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선전하기 위해 문인과 화가, 건축가를 후원했다. 절대군주정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떠맡은 서유럽 군주들이 예술 후원에 앞장선 것 역시 예술의 정치적 기능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과제 번호: 2013S1A5A2A03044678)로 작성되었다.

정치적 목적에서의 예술 후원은 루이 14세 치세에 절정에 달했다. 오늘날 까지도 절대군주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그는 학문과 예술의 세계를 독점하고 후원함으로써 프랑스 문화의 모델을 창출하고 전파하는 일종의 정치적 기획을 성공시켰다. 이를 통해 그는 국내에서는 정치적 통합을 추진하고 국외에서는 프랑스 문화의 독창적이고 우월적인 위상을 전 유럽에 각인시켰다. 그러한 시도는 이미 루이 13세 시대부터 본격화되었다. 1635년 파리를 유럽 문필공화국의 수도로 만들려는 야심을 지닌 리슐리외가 문인들을 독려하고 통제하기 위해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를 설립했던 것이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설립은 정치적 지배를 위한 문화적 통합정책으로 시도된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아카데미 프랑세즈 연구는 주로 그러한 시각에서 권력이 문학을 정치 선전도구로 활용했다는 일방적인 정치적 해석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평면적인 제도사적 설명에 그쳐왔다.¹⁾ 이제 권력이 아니라 문학의 입장에서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문인들이 국가의 후원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단지 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의 족쇄를 받아들인 것일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세 이래 유럽의 지식 세계는 성직자들과 법관들에게 독점되어왔다. 문인(gen de lettre), 작가(écrivain), 시인(poète), 저자(auteur), 학자(savant) 등 다양한 호칭의 문필업 종사자들은 17세기 초에도 여전히 독자적인 사회적 지위를 누리지 못했다.²⁾ 그들은 자신의 작업이나 노동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생계유지를 위해 성직자나 변호사, 비서, 가정교사 등 다른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와 동시에 누군가에 의존하며 살았다. 이렇듯 작품 활동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경제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원은 문학을 지탱해준 효율적인 사회적 관계방식이었다.³⁾ 문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그를 위해 글을 썼다. 문학 후원자들은 대부분 하나

1) M. Fumaroli, *Trois institutions littéraires*(Gallimard, 1994), p. 24.

2) 양시영 레짐 하에서 이러한 용어들은 유사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했지만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문인은 주로 문학작품이나 역사서를 쓰는 산문작가를 가리켰으며 시인과 구별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인들 중 저자가 아닌 사람도 많았다. 이 글에서는 문인을 문필업 종사자를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문인의 용어에 관해서는 A. Viala, *Naissance de l'écrivain. Sociologique de la littérature à l'âge de classique*(Minuit, 1985), pp. 270-290 참조.

3) H.-J. Martin, *Livres, pouvoirs et société à Paris XVII^e siècle, 1598-1701* (Genève: Droz, 1969), p. 430.

혹은 여러 정치적 당파에 속해 있던 귀족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17세기 초 프랑스 문인은 정치 선전가였으며 후원제는 정치적 담론의 생산체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프랑스 문학에서 후원의 역할은 오랫동안 간과되었다.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 아카데미나 살롱, 궁정에 비해 후원제는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17세기 프랑스 문학 연구가 문학사학자들에게 독점되어 왔던 탓이 크다. 17세기 영국 문학의 경우는 사뭇 대조적이다. 영국 역사가들이 셰익스피어와 밀턴을 궁정과 지방의 정치사회적, 문화적 충돌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17세기 영국문학을 영국사에 당당히 편입시켰으니 말이다.⁴⁾ 계몽사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과정과 독특한 방식에 관한 치밀한 연구가 축적된 18세기 프랑스사 연구 업적도 그에 비견될 만하다.⁵⁾ 17세기 프랑스사에서는 단지 루이 14세 시대의 정치와 예술, 특히 미술과 건축이 복합적인 시각에서 분석됨으로써 이례적인 연구 성과를 낳았을 뿐이다.⁶⁾

17세기 프랑스 문학을 역사와의 융합적 시각에서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프롱드란 동안 출판된 마자랭 비방문 ‘마자리나드(mazarinades)’를 ‘행위 문학’으로 규정지며 정치와 문학의 역학관계를 분석한 주오의 연구는 17세기 프랑스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⁷⁾ 주오 외에 뷔마롤리, 비알라 등 17세기 연구자들이 문학 후원에서 역사와 문학의 접합지점을 포착한 것은 좀 더 최근의 일이다.⁸⁾

이 글의 의도는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17세기 프랑스 문학 세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1635년 프랑스 최초의 공적 문학 후원기구로 출범한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17세기 전반기 프랑스에서 보편화되어 있던 사적 후원이 공적 후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학 세

4) K. Sharpe, *Criticism and Compliment: The Politics of Literature in the England of Charles I*(Cambridge, 1987); K. Sharpe and S. Zwicker (eds.), *The Politics of Discourse*(Berkeley, 1987).

5) R. Danton, *The Literature Underground of the Old Regime*(Cambridge, 1982).

6) J. M. Apostolidès, *Le Roi-machine, Spectacle et politique au temps de Louis XIV*(Minuit, 1981); P. Burke, *The Fabrication of Louis XIV*(Yale Univ. Press, 1992).

7) C. Jouhaud, *Mazarinades, la Fronde des mots*(Aubier, 1985).

8) A. Viala, *Naissance de l'écrivain. Sociologique de la littérature à l'âge de classique*; C. Jouhaud, *Les Pouvoirs de la littérature. Histoire d'un paradoxe*(Gallimard, 2000); M. Fumaroli, *Le Poète et le roi. Jean de La Fontaine en son siècle*(Éditions de Fallois, 1997).

계 내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심장한 주제다. 미술이나 건축과는 달리 후원의 의미와 관계를 밝혀주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증거를 남겼다는 점 또한 문학 후원 연구가 지닌 유리한 측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17세기 전반기 프랑스의 독특한 역사적 상황에서 문학 후원이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탄생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러한 변화가 문학 고유의 영역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탄생을 정치와 문학의 상관관계 속에서 재구성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프랑스 절대군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맥을 함께 한다. 나아가 18세기에 꽃핀 프랑스 문학과 철학을 17세기와의 연속선상에서 설명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II. 사적 후원에서 공적 후원으로

1. 17세기 초 프랑스의 정치상황과 후원문화

후원은 예술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후원은 근대 초 유럽 전반, 특히 귀족사회에 만연했던 복잡하고 수직적인 인간관계망이다. 후원자와 피보호자 사이의 유대관계인 후원관계, 다시 말해 후건제는 다양한 수준에서 재연되고 확산되면서 사회 전체의 성격과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문학 후원은 예술이나 문학의 좁은 범주가 아니라 17세기 프랑스 정치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맥락에서 이해될 문제이다.

17세기 프랑스 역사가 무니에는 후건제를 충성관계로 설명한다. 무니에에 의하면 17세기 프랑스 사회 구성원들을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긴밀하게 결합시킨 충성관계는 토지나 경제적 생산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물질적 자산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런 점에서 후건제는 중세 봉건제와는 다르며 근대적 계급체계와도 다르다. 그것은 단순한 봉사와 보상의 교환관계가 아니라 한편에서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바치고 다른 편에서는 무한한 애정을 약속한 감정적 유대관계이다.⁹⁾ 무니에의 해석은 문학사가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다. 충성과 우정은 근대 초 문학세계의 핵심적인 주제였으니 말이다.

반면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보수주의 역사가 뤼마롤리는

9) R. Mousnier,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sous la monarchie absolue, 1598-1789*(PUF, 1980), t. 1, pp. 99-106.

무니에를 적극 지지했다.¹⁰⁾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무니에의 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캐터링은 무니에가 충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한 사료를 문제 삼았다. 그녀는 사회경제사적 연구를 토대로 무니에와 정반대 해석을 제시했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충성심과 애정은 수사에 불과하며 후견제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은폐한다.¹¹⁾ 후견관계는 대부분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기에 피보호자들은 상황에 따라 후견인을 바꾸었다. 그로 인해 후견관계는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복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근대 초 프랑스 문헌에서 무수히 발견되는 사랑과 존경, 충성심의 표현은 위선이며 공허한 메아리인가? 캐터링은 후견제의 본질을 밝혀주었지만 그녀의 해석에 의하면 후견제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복제되는 보편적인 사적 구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정작 17세기 사전에서 오늘날 후견제를 의미하는 patronage는 성직록에 관련된 교회 용어로 국한될 뿐이며 다만 후견인(patron)이 보호자(protecteur)와 동의어로 정의되었다. patron은 라틴어 patronus에서 파생되고 patronus는 로마법에서 강력한 권한을 지닌 존재인 가장을 뜻하는 pater에서 유래했다.¹²⁾ 따라서 후견제를 이해하려면 가족 특히 가부장관계가 확대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유럽의 귀족들은 대부분 아들을 대귀족의 시동으로 보냈고 젊은 귀족들은 그렇게 해서 제2의 아버지인 후견인을 얻었다.¹³⁾ 이렇듯 귀족사회에서 흔히 나타난 후견관계는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친족관계와 다르며 불평등하다는 점에서 친구관계와 다르다.

충성과 그에 걸맞은 대가를 주고받는 인신적이고 타산적인 관계는 정치사회적 격변과 사회적 유동성이 극심했던 근대 초 프랑스에서 유달리 강한 응집력을 보였다. 16세기 후반 이후 계속된 종교내전과 반란에서 대귀족이 반란에 앞장서자 수많은 귀족들이 동참했다. 귀족들의 후견조직망이 군사조직

10) M. Fumaroli, *L'Age d'or mécénat, 1598-1661, Le Mécénat en Europe et particulièrement France avant Colbert*(Editon du CNRS, 1985), pp. 1-11.

11) S. Kettering, *Patrons, Brokers, and Clients in Seventeenth Century France* (Oxford Univ. Press, 1986), p. 9.

12) A. Furtière, *Dictionnaire universel*(Le Robert, [1690]1978), t. 3, p. 65.

13) J. Dewald, *Aristocratic Experience and the Origins of Modern Culture: France 1570-1715*(Univ. of California Press, 1993), pp. 86-94.

체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1610년 루이 13세의 즉위 후 상당수의 귀족들이 절대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은 끊이지 않았다. 1624년 수석대신이 된 리슐리외가 왕권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바로 귀족들의 후견조직망을 분쇄하는 것이었다.

17세기 초 프랑스에서는 이렇듯 상반된 두 가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선 종교내전과 두 차례의 국왕 시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으며 엘리트층에서는 자연스럽게 절대군주권의 우월성을 인정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다른 한편 군주권의 구심력에 맞서 원심적 성향을 보이는 전통귀족들의 다양한 후견조직망들이 여전히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다.

두 세력은 특히 수도 파리에서 공존하며 충돌했다. 그러나 1598년 앙리 4세가 스스로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대신 개신교 예배를 허용하는 낭트칙령을 공표하며 정치적 통합을 촉구하자 완고하고 폐쇄적이던 파리는 성문을 열고 앙리 4세를 환영했다. 그때부터 파리는 놀라운 흡입력을 발휘하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었다. 누구보다 먼저 귀족과 관리들이 권력을 좇아 파리에 정착했다. 부르주아에 이어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동경과 출세의 야망에 사로잡힌 무명의 글쟁이들도 파리로 몰려들었다.

정치사회적 집중 현상과 더불어 17세기 초 파리는 문화적 열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궁정은 아직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했고 궁정사회의 범주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귀족들은 궁정보다는 귀족부인들의 살롱에서 사회성을 즐겼다. 문인들도 그러한 모임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낭독하고 평을 들으며 영감을 얻기도 했다.

17세기 프랑스 문인들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지녔다. 우선 그들은 대체로 유복한 부르주아 출신이었다. 코르네유(Corneille)는 루앙 법관의 아들이며, 샤프랭(Chapelain)은 파리 공증인의 아들, 게즈 드 발자크(Guez de Balzac)는 앙굴렘 시장의 아들, 콩라르(Conrard)는 발랑시엔 상인의 아들이다. 그들은 콜레주에서 고전 교육을 받고 대학에서 법이나 신학을 공부했다. 이들이 지닌 더욱 의미심장한 공통점은 비서로 일하건 아니건 대부분 누군가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후원자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부와 권력의 독점을 토대로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왕족과 귀족들이었다.¹⁴⁾ 문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후원

14) P. W. Shoemaker, *Powerful Connections: The Poetics of Patronage in the Age*

자는 왕실이었다. 중세 이래 유지되어 온 전통에 따라 아직은 왕도 원칙적으로 사적 후원자였을 뿐이다. 루이 13세는 개인적으로 말레르브(Malherbe)와 공보(Gombauld)를 후원했다. 메디치 가문의 후손답게 적극적인 예술 후원자 역할을 한 모후 마리 드 메디치는 부아로베르(Boisrobert)와 말레르브를 후원했다. 루이 13세의 동생으로 수많은 반란의 주모자였던 가스통 도를레앙은 후한 인심으로 당대 최고의 메세나로 통했다. 그는 콩라르, 레르미트(L'Hermite)와 부아튀르(Voiture), 보즐라(Vaugelas)의 후원자였다.

수적인 면에서는 귀족 후원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살롱이 귀족과 문인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1615년 랑부에 부인이 파리에서 최초로 살롱을 연 이후 귀족과 문인이 살롱에서 문학적 유희를 즐기는 모습은 곧 파리의 낮익은 풍속도 중 하나가 되었다.¹⁵⁾ 살롱이 유행하면서 귀족과 문인의 만남이 빈번해지고 자연스럽게 후원관계가 형성되었다. 방돔 공작은 뒤리에(Du Ryer), 에페르농 공작은 게즈 드 발자크, 레 추기경은 생타망(Saint-Amant), 수아송 백작은 코르네유와 로트루(Rotrou), 룡그빌 공작은 샤플랭, 기즈 공작 가문은 레르미트와 코르네유를 후원했다.

세 번째 후견인 집단은 대신이나 대상서, 고등법원 법관과 같은 고위 관리들이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리슐리외다. 1624년부터 리슐리외의 주변은 게즈 드 발자크, 콩라르, 부아로베르, 생소를랭(Saint-Sorlin), 샤플랭 등 당대 최고의 문인들로 가득찼다. 부아로베르는 리슐리외의 비서 역할을 했으며 샤플랭은 1632년 리슐리외의 휘하에 들어간 이후 문단에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다.¹⁶⁾ 대상서 세기에는 14명의 문인에게 봉급을 주며 그들을 거느렸다.

이렇듯 17세기를 대표하는 문인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후원을 받았다. 말레르브, 부아로베르, 샤플랭, 게즈 드 발자크, 코르네유, 레르미트처럼 동시에 여러 명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혹은 후원자를 차례로 바꾸기도 했다. 고정된 사회적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 위치한 부정형의 영역이었던 후원은 한편으로는 위계적인 관계로 문인들을 좌절시켰지만 다른 한편

of Louis XIII(Univ. of Delaware Press, 2007), pp. 30-32.

15) M. Fumaroli, *Trois institutions littéraires*, p. 136. 17세기 중엽 파리에만 40여 개의 살롱이 존재했다.

16) M. Fumaroli, "Les Intentions de Richelieu, protecteur de l'Académie française", R. Mousnier (dir.), *Richelieu et la culture: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en Sorbonne*(CRNS, 1987), p. 73.

창조적 활력을 제공했다. 후원에는 다양한 혜택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가정교사나 비서로 일하며 받는 봉급 외에 문인들은 후견인들로부터 하사금을 받았다. 롱그빌 공작은 자신에게 대서사시 『잔다르크』를 바친 샤플랭에게 2,000리브르를 지급했다.¹⁷⁾ 문인들은 하사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했다. 따라서 연금 수입이 보장되는 국왕 관리직을 얻어줄 수 있는 후견인 앞에는 문인들이 줄을 섰다. 후원은 화폐에 국한되지 않았고 거처 제공이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권리, 살롱 출입권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문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했으며 종종 후견인을 바꾸기도 했다.¹⁸⁾

2. 후견제와 메세나

후원과 봉사의 방식도 저마다 달랐다. 알랭 비알라는 『문인의 탄생』에서 후견관계의 양태를 둘로 구분하고 있다. 같은 문인일지라도 후견인의 저택에서 비서나 교사로 봉사하는 것과 문학적 봉사는 다르다는 것이다.¹⁹⁾ 다시 말해 전자가 총애와 봉사가 교환되는 포괄적인 후견제에 속한다면, 후자는 문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른바 좁은 의미의 후견제, 이른바 메세나이다.

17세기에는 후견제와 마찬가지로 메세나(mécénat)라는 단어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Mécénas가 그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1690년 출판된 뷔르티에르의 『사건』에 의하면 Mécénas는 “문인들 특히 시인들을 사랑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준 로마 황제의 총신의 이름으로, 그때부터 저자들을 좋아하고 그들이 바친 헌정사의 대가를 지불해주는 부유층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용되었다.”²⁰⁾ 이는 17세기 프랑스에서 로마의 예술 후원자 마에세나스(Maecenas)를 모델로 이상화된 예술후원자의 개념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뷔르티에르의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헌정사이다. 헌정사는 후원자를 명시

17) C. Jouhaud et H. Merlin, “Mécènes, patrons et clients: Les médiations textuelles comme pratiques clientelaires au XVII^e siècle”, *Terrain*(oct. 1993), p. 47. 이러한 세태를 풍자한 뷔르티에르의 작품 『부르주아 소설』(*Le Roman bourgeois*)에 의하면 대체로 소네트는 3리브르, 서사시는 2,000리브르로 장르에 따라 가격이 상이했다(P. W. Shoemaker, *Powerful Connections*, p. 229).

18) *Ibid.*, p. 34.

19) A. Viala, *Naissance de l'écrivain*, p. 54.

20) A. Furtière, *Dictionnaire universel*, t. 2, p. 693.

적으로 밝히며 그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등 특정한 형식에 맞추어 쓰이고 관행에 따라 낭독되었다. 헌정사에서는 메세나의 존재와 의미가 확실히 부각되었다. 그렇다면 후원자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쓰였지만 종종 익명으로 발표된 편지나 비방문, 의견서 등 정치논쟁의 글은 메세나의 범주에 속하는가 아니면 후견제에 속하는가?

정치논쟁의 글은 순수 문학작품이 아니라 후견인을 위한 정치적 봉사에 해당되기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메세나보다는 후견제의 산물이다. 그러나 문인들은 후원을 얻어내기 위해 엘리트층의 문화적 양식과 취향을 전유하고 다양한 문학 장르와 표현 방식의 글을 발표했다. 정치논쟁의 글은 바로 그러한 상황의 산물이며 그 자체로도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공감을 얻었다.²¹⁾ 정치논쟁의 문을 통해 문인으로 등장한 발자크의 작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1624년 그는 자신의 후견인인 에페르농 공작을 포함한 고위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 모음집 『발자크의 편지』를 발표했다. 명료하고 꾸밈없지만 치열하고 전투적인 정치 성명서에 다름 아닌 이 작품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그는 문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을 뿐 아니라 여러 귀족의 후원을 받으며 대변인 역할을 했다.²²⁾ 발자크의 예에서 보듯이, 순수 문학행위와 문학적 봉사는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웠으며 후견제와 메세나는 뚜렷한 차이 없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다.²³⁾

실제로 후견인들은 문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봉사를 요구했다. 왕실은 정치 선전뿐 아니라 궁정축제를 위해 문인들을 고용했다. 왕실의 주문은 왕의 존엄과 상징을 국가 권위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뿐 기본적으로 자신을 찬양하는 시를 쓰라는 귀족들의 요구와 다를 바가 없었다. 1624년 리슐리외가 수석대신이 되면서 상황이 긴박해졌다. 대귀족은 문인들을 고용해서 리슐리외를 비난하는 선동적인 비방문을 발표하도록 했다. 과격한 팽플릿들이 은밀히 파리 시내 도처에 유포되기도 했다. 비방문과 팽플릿은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행위였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리슐리외에게 반란 못지않게 위협했다. 리슐리외의 문인들이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이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이는 이른바 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1630년대에 반란과 함께 글의 전쟁은 전국

21) P. W. Shoemaker, *Powerful Connections*, p. 37.

22) C. Jouhaud, *Les Pouvoirs de la littérature*, p. 38.

23) 발자크 외에도 노테(G. Naudé), 르브레(C. Le Bret), 프리에작(D. Priézac) 등도 비슷한 시기에 정치논쟁의 글로 인기를 얻었다.

으로 확대되었다.²⁴⁾ 이렇듯 후견조직망으로 뒤엎킨 문인과 귀족, 국가의 이합집산과 대립이 되풀이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문화가 형성되었다.

III.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설립과 성격

1620년대 프랑스의 정치상황은 권력이 왜 글이라는 수단과 문인을 필요로 했는지 말해준다. 1631년 리슐리외가 주간 신문 『가제트』를 창간한 것도 글을 통한 정치선전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였다.²⁵⁾ 다른 한편 리슐리외는 문인들의 동태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귀족들과 문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살롱도 그에게는 단지 정치적 음모의 근거지로 여겨졌을 뿐이다. 그는 당시 가장 인기 있던 랑부예 후작부인의 살롱에 수시로 부아로베르를 보내 문인과 귀족을 염탐하도록 했다. 1635년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설립은 그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 리슐리외는 단순한 정치선전이나 군주의 이미지 만들기 차원을 넘어서 직접 문학 세계를 통제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²⁶⁾

물론 아카데미 프랑세즈 이전에도 왕실 아카데미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설립 목적에서부터 이전의 아카데미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다. 이전의 아카데미는 주로 순수 학문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왕 개인을 위한 사적 성격을 띠었다. 예를 들어 1570년 샤를 9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설립한 시·음악 아카데미(Académie de poésie et musique)의 경우 그리스·로마문화를 부활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로 왕의 예지를 단련시키는 기능을 했다.²⁷⁾ 반면 리슐리외는 군주와 자신을 찬양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를 필요로 했으며 문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원했다.

이때 기존의 후견조직망이 권력과 문학의 새로운 구도가 탄생하는 온상 역

24) 이영림, 『17세기 전반기 프랑스의 정치선전문화와 출판물의 성장』, 『경기사학』 1호 (1997. 2), 212-217쪽.

25) G. Fayel, "Richelieu et Gazette", R. Mousnier (dir.), *Richelieu et la culture*, pp. 103-125.

26) M. Fumaroli, "Les Intentions de Richelieu", pp. 69-79.

27) R. Chartier, "Trajectoires et tensions culturelles de l'Ancien Régime", A. Burguière (dir.), *Histoire de la France*, v. 4, *Les Formes de la culture*(Seuil, 1993), p. 345.

할을 했다. 1634년 1월 리슐리외는 우선 콩라르에게 1629년부터 그의 집에서 유지되어온 사적 모임을 후원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파리에는 16개의 문학 모임이 존재했다. 문인들은 대귀족의 집무실이나 서재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 지적이고 화기애애한 대화를 즐겼다.²⁸⁾ 리슐리외가 그 중 콩라르의 모임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흔히 콩라르가 리슐리외와 친분이 두터웠다는 점이 거론된다. 콩라르의 모임에는 그 외에도 리슐리외의 후원을 받던 문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임의 장소가 귀족의 저택이 아닌 콩라르의 집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콩라르가 국왕의 의지를 대변하는 상서청 소속 국왕비서였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변수였다. 리슐리외는 곧 콩라르에게 그의 모임을 승인해줄 공식 문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635년 1월 29일 마침내 국왕특허장을 통해 콩라르의 모임은 공식 제도로 승격되고 콩라르는 수석간사로 임명되었다. 이 기구의 명칭으로는 지극히 단순하고 상징적인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채택되었고 문장에는 월계관과 더불어 ‘영구불멸하게(à l’immortalité)’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이렇게 해서 콩라르는 프랑스 문학사에서 영구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탄생과정에서 권력과 문학의 매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17세기 문학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 우리는 17세기 프랑스 고유의 사회문화적 단면과 지적 지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콩라르는 지속적인 신분상승과 체계적인 교육을 토대로 정치적 야망을 키워온 17세기 프랑스 부르주아의 전형이다.²⁹⁾ 여기에 위그노라는 특수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발랑시엔의 부유한 위그노 상인이던 그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통의 개신교 학교에서 교육시킨 다음 재정이 사회에 입문시켰다. 루이 13세의 동생인 가스통 도를레앙 밑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런 아버지 덕

28) R. Descimon et C. Jouhaud, *La France du premier XVII^e siècle*(Belin, 1996), p. 142. 17세기 전반기 파리에서 유명했던 다른 모임으로는 뒤피 형제의 모임을 들 수 있다. 1617년부터 고등법원 재판장 투(Thou)의 서재에 모이기 시작한 이 모임 구성원 중에는 법관들이 많았고 르네상스 인문주의 전통이 강했다. M. Fumaroli, *Trois institutions littéraires*, p. 136.

29) N. Schapira, *Un Professionnel des lettres au XVII^e siècle: Valentin Conrart: Une histoire sociale*(Seysssel: Champ Vallon, 2003), pp. 27-88.

분이었다. 가스통 도를레앙의 서신 작성 작업에 종사하게 된 그는 개신교 목사의 종교 문헌 출판을 돕는 역할을 하며 개신교 엘리트 공동체에 참여했다. 17세기 전반기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라 함은 단순히 신앙의 정체성과 윤리적, 정치적 성향만이 아니라 지식 세계 내부의 긴밀한 인맥에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이는 18세기 프랑스 지성사를 17세기와 연결지을 수 있는 실마리를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콩라르의 경우 이러한 지적 인맥은 경제적 여유 및 사회적 지위와 함께 귀족이 아니었던 그가 독자적으로 사적 모임을 주도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1627년부터 랑부에 후작부인의 살롱에 드나들던 그가 1629년 자신의 집에 초대된 문인 8명 중 절반이 위그노이거나 친 위그노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었다. 그때부터 콩라르의 문인 친구들은 1주일에 한번 파리 중심가 생마르탱 길(rue Saint-Martin)에 위치한 그의 집에 모였다. 그들은 아무런 원칙도 격식도 없이 서로의 작품을 평하고 온갖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했다.³⁰⁾ 1634년 리슐리외의 제안을 받아 일부 문인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모임의 자유로운 성격이 손상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임 자체가 금지 당할지 모른다는 샤플랭의 설득으로 구성원들은 리슐리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³¹⁾

콩라르 모임의 구성원들이 리슐리외의 제안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분위기와 논의는 1653년에 출판된 펠리송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역사에 관한 보고서』³²⁾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펠리송의 저술은 아카데미 프랑세즈 초기 역사서 중 남아 있는 유일한 자료로 오늘날까지도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 물론 다른 자료에 의해 검증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의 저술에 의구심을 표하는 역사가들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리슐리외의 후원 제안을 불편하게 여긴 구성원들의 분위기에 관한 펠리송의 설명은 사실성을 인정받을 만하다. 1653년은 리슐리외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펠리송은 리슐리

30) 콩라르 모임의 구성원은 샤플랭, 고도(Godeau), 공보(Gombaud), 쥐리(Giry), 아베르(Habert), 스리지 신부(abbé de Cerisy), 세리제(Sérizay), 말빌(Malleville) 등이다: Pellisson et D'Olivet, *Histoire de l'Académie française*(Genève: Slatkine, 1989), pp. 8-9.

31) *Ibid.*, p. 10.

32) P. Pellisson, *Relation contenant l'histoire de l'Académie française*(Le Petit, 1653). 이 책은 1729년 D'Olivet 신부가 출판한 『아카데미 프랑세즈 역사』에 수록되고 이후 수차례 재간행되었다.

외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니 말이다.³³⁾

펠리송의 저술이 지닌 가치는 그보다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성격과 기능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정관과 그에 관한 설명에 있다. 특히 1항(“후원자가 호의적으로 여기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아카데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과 12항(“아카데미에서 다루어지는 정치적, 도덕적 주제는 반드시 군주의 권위, 통치상태, 왕국의 기본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에서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독특한 정치적 성격이 드러난다.³⁴⁾ 이 두 항목에 의하면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리슐리외의 사적 선택에 의존하지만 그 목적은 국가와 군주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24항에서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카데미는 프랑스어를 순수하고 세련되며 학문과 예술의 언어로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³⁵⁾ 1539년 프랑수아 1세가 모든 공문서에 라틴어 대신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한 빌레르 코트레 칙령을 공포한 이후 프랑스어가 법과 행정의 언어로 정착하기 시작했다면, 1635년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그때까지 학문과 예술 세계를 지배해온 라틴어를 프랑스어로 대체시키려는 목표를 천명했던 것이다. 그와 더불어 프랑스어의 어휘와 문체의 통일 및 완벽성을 위한 사전편찬과 문법, 수사학, 문집 출판 사업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었다(26항). 제도 운영에 관한 15-20항에 의하면 회원 수는 40명으로 고정되었다.³⁶⁾ 또한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교육의 기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여성을 배제하고 모임에 후원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못박고 있다.³⁷⁾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검열에 관한 30항이다.³⁸⁾ “검열을 위해 제출된 저작의 한 부는 아카데미에서 검토된 다음 사무총장이 보관한다.” 그때까지 출판물에 관한 검열을 독점해온 고등법원은 새로 탄생한 언어 법정을

33) 펠리송이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초기 역사를 쓰게 된 것은 콩라르의 권유 때문이었다. 아카데미 회원이 되기를 갈망했던 그는 같은 위그노였던 콩라르와 유사한 삶의 궤적을 밟았다. C. Jouhaud, *Les Pouvoirs de la littérature*, p. 11.

34) Pellisson et D'Olivet, *Histoire de l'Académie française*, p. 57.

35) *Ibid.*, p. 354.

36) 1635년 출범한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은 총 38명으로 문인 외에도 국세상서 세기에(Séguier), 육군 국무부서 세르비앵(Servien), 의사 라상브르(la Chambre), 수학자 메지리악(Méziriac), 외교관 보트뤼(Bautru) 등이 포함되었다.

37) Pellisson et D'Olivet, *Histoire de l'Académie française*, pp. 267-287.

38) *Ibid.*, pp. 489-497.

경쟁상대로 여기며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설립을 인가하는 국왕 특허장의 등기를 거부했다.³⁹⁾ 문인들도 새로운 검열 기구의 존재에 우려를 표했다. 그들의 우려는 1637년 〈시드〉 논쟁으로 입증되었다. 중세 에스파냐의 기사도 이야기를 다룬 코르네유의 〈시드〉는 1637년 1월 마레 극장에서 상연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그러자 문인들의 질투 섞인 비난이 이어지며 문학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문인들은 주제의 부적합성, 불필요한 에피소드, 저속한 어휘 등을 근거로 아카데미에 중재를 요청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온건하지만 단호하게 코르네유를 비판하며 수정을 요구했다.⁴⁰⁾ 이 사건을 계기로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문학작품을 재단하는 사법적 기구임이 증명된 셈이다.

이렇듯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여러 면에서 사적 후원과 달랐다. 특히 국왕 특허장에 의해 설립된 공적 기구로서 구체적인 규정과 정관을 지녔으며 문학 세계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리슐리외 역시 모임에 직접 참석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미학적 원칙을 강요하지도 않는 등 국가제도로서의 권위와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 1항에 명시되었듯이 회원 선발을 리슐리외 개인의 의사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사적 후원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했다.

39) 절대군주정의 성장과정에서 법안 등기권을 무기로 국왕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정치적 기능을 해온 고등법원은 1637년 7월 10일에야 아카데미 프랑세즈 설립에 관한 국왕특허장을 통과시켰다.

40) 〈시드〉 논쟁은 17세기 전반기 문학 논쟁의 최대 이슈였다. 아버지의 복수와 사랑 사이의 갈등과 위기를 의지의 힘으로 극복한 〈시드〉의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와 열정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제 및 표현 방식이 논란을 빚자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코르네유에게 침묵을 명하고 논쟁을 중지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강압이 문인들을 완전히 질식시킨 것은 아니었다. 샤프랭이 작성하고 리슐리외가 승인한 *Sentiments de l'Académie française sur tragi-comédie du Cid*는 별다른 호소력도 법적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코르네유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판결을 거부하고 공개적인 투표를 요구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1660년 늙은 코르네유는 「시드」를 재간행하기 위해 텍스트를 수정했다. 결과적으로 〈시드〉 논쟁은 프랑스 문학의 고전주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시드〉 논쟁에 관해서는 H. Merlin-Kajman, *L'Excentricité académique, Littérature, institution, société*(Les Belle Lettres, 2001), pp. 169-188 참조.

IV. 권력과 문학의 변증법

1. 권력과 문학의 결합

공과 사가 뒤섞인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이중성은 시대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리슐리외는 오히려 이를 통해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탄생은 리슐리외의 강압으로만 설명될 문제가 아니다.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문인이 얻은 혜택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상 아카데미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귀족의 사적 후원에 의존하던 문인들이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 비서나 가정교사와 같은 단순 직업에 머무르던 문인들은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직업 소유자로 대접받기를 꿈꾸었다. 귀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글을 쓰던 문인들은 모호하고 불안정한 사적 후원보다는 예측가능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줄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했다.⁴¹⁾ 롱그빌 공작의 후원을 받던 샤플랭이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되기를 갈망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그에게 3,000리브르의 연금 외에 아카데미 회원이라는 공적 지위와 다양한 특혜를 부여했던 것이다.⁴²⁾ 출판에 관한 모든 정보와 인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도 중요했다.⁴³⁾ 이렇듯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문학 행위를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확보하고자 했던 문인들의 갈망의 산물이었다.

1639년 발표한 『메세나』(*Mécénas*)⁴⁴⁾에서 발자크는 로마 시대의 예술 후원자 마에세나스를 이상화하고 있지만 그의 더 깊은 속내는 권력과 결합한 문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있는 듯하다. 수많은 동시대인들이 그랬듯이 그는 이 책에서 로마의 예를 통해 프랑스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모순을 이해했다.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바뀐 로마의 운명은 이중적으로 설명된다. 공화정의 몰락은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야심과 군사적 성공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정

41) C. Jouhaud, *Les Pouvoirs de la littérature*, p. 368.

42) *Ibid.*, p. 119.

43) N. Schapira, *Un Professionnel des lettres au XVII^e siècle*, pp. 101-103.

44) 1639년에 쓰여진 이 작품은 1644년 발자크의 *Œuvres diverses*에 수록되었다. Guez de Balzac, *Œuvres diverses*(1644), éd. par R. Zuber(Champion, 1995).

치적 불안과 내란에 지친 로마인들의 선택이다.⁴⁵⁾ 평화를 위해 자유를 포기한 로마인들은 자치와 도덕적 엄격함을 추구하던 공화정의 윤리 대신 변영과 여유의 윤리를 받아들였다. 발자크는 로마 공화정의 몰락을 애통해하면서도 이러한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마에세나스는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온 로마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 귀감이 된 인물이다. “마에세나스는 올바르게 신중하며, 오직 말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탁월한 웅변술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수많은 충복을 만들어주는 한편 그에게는 중용을 지키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종하도록 설득했다. 궁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강연은 아우구스투스를 향한 찬사와 영광에 바쳐졌다.”⁴⁶⁾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부를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아우구스투스 주변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아우구스투스에게 자문을 해주고 그를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지적, 문화적 엘리트층을 지배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적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토대를 굳힌 마에세나스는 “웅변가들 및 시인들과 더불어 살아있는 인간을 축성하는 새로운 종교의 추진가요, 그러한 모든 사원들의 창설자이다.”⁴⁷⁾ 공화정의 정치적 자유를 포기한 대신 문인들은 마에세나스가 건설한 평화의 전당에서 자유롭고 안락한 대화를 즐겼다. 하지만 마에세나스는 단순히 문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주와 문인의 중재자였다. 그는 “사적인 개인들에게 특혜와 예절을 베풀며 공적인 것에 충고와 해결책을 제시했다.”⁴⁸⁾ 공과사를 결합시키고 화해를 구현한 마에세나스를 통해 사적 개인인 문인들은 군주가 속한 공적 영역에 봉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예술 후원의 황금시대로 일컬어지는 아우구스투스와 마에세나스 시대에 대한 향수는 17세기 프랑스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주제였다. 17세기 프랑스도 로마와 유사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종교내전을 경험한 프랑스에서는 루이 13세에 의해 권력집중이 이루어졌다. 로마 제국은 곧 프랑스의 절대국가이고 발자크가 진정한 군주로 간주한 아우구스투스는 루이 13세에 비견될 만하다. 대다수 프랑스인들도 로마인들처럼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고

45) *Ibid.*, p. 138.

46) *Ibid.*, p. 142.

47) *Ibid.*, p. 147.

48) *Ibid.*, p. 140.

강한 군주를 지지하며 변명과 평화를 갈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17세기 프랑스 역시 마에세나스와 같은 인물을 필요로 했다. 마에세나스가 17세기 프랑스 문학의 우상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발자크가 『메세나』에서 제시한 예술 후원자의 모델은 오늘날 통용되는 메세나 개념과 사뭇 다르다. “마에세나스는 철의 세기에 황금 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자유를 갈구하는 영혼들을 군주정에 견뎌내도록 하고 도처에 행복을 널리 전파하고 아우구스투스의 사랑을 공유하게 한다.”⁴⁹⁾ 마에세나스는 문인들을 후원해주는 존재일 뿐 아니라 국가에도 유익한 존재인 것이다. 공화정에서 정치가 하던 역할을 새 시대에서는 문학이 할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그는 “문인들을 아우구스투스를 향해 움직이게 하고 아우구스투스를 공익, 다시 말해 공동체를 향해 움직이게 함으로써 명령의 원칙과 복종의 원칙을 조화”시켰다. 로마인들을 자유와 행복의 원리에 지배되는 새로운 군주정에 복종시킨 마에세나스는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새로운 종교를 실천하는 세속 주교인 셈이다.

도덕적, 종교적 범주에서 벗어난 마에세나스의 통치철학을 통해 발자크가 역설하고자 한 것은 리술리외가 강조한 국가이성의 정치학이다. 국가이성의 교리에 대한 열렬한 옹호는 1628년에 발표된 『군주론』에서 더욱 노골적이고 과장된 어조로 전개되었다.⁵⁰⁾ 비단 발자크만이 아니라 파레, 샤플랭, 고도 등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된 문인들은 앞 다투어 국가이성을 찬양하고 정당화하는 작품을 발표했다.

보수주의 역사가 뤼마롤리는 국가이성을 수용한 17세기 문인들의 주장을 애국주의의 단초로 해석한다.⁵¹⁾ 국내의 반란과 동시에 합스부르크와의 대외 전쟁에 직면한 프랑스의 운명에 대한 불안감이 군주정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 일으켰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이성의 나팔수가 된 문인들의 태도를 단지 군주정에 대한 충성심으로 돌릴 수 있을까?

2. 노예근성인가 문학적 자율성인가?

문인들은 충성심 때문에 혹은 권력의 당근에 취해 스스로 문학적 자율성을

49) *Ibid.*, p. 141.

50) Guez de Balzac, *Le Prince*(T. du Bary, P. Roccolet et C. Sonnius, 1631).

51) M. Fumaroli, *L'Age d'or mécénat*, p. 576.

포기한 것인가? 새로운 정치 언어로 국가이성의 정치학을 지지한 문인들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강요에 굴복한 노예인가? 기존의 역사해석은 정치적 질서와 사회적 질서, 그리고 문화적 질서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문화적 독점과정이 폭력 및 조세의 독점과 나란히 진행되었다는 전제 하에, 루이 13세 치세에 본격화된 중앙집권화가 루이 14세에 의해 완성되었다는 정치적 해석과 제도적 실체로 등장한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설립부터 루이 14세 시대에 절정에 달한 고전주의의 발전과정을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한다.⁵²⁾ 문학사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문학사가들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설립을 당대 최고의 문인들을 하나의 제도 속에 통합시킴으로써 기존의 후원제를 재조직하고 조종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간주한다.⁵³⁾ 통일성과 절제를 추구하는 고전주의 미학을 정치적 통합의 예술적 내면화로 설명하는 이러한 해석은 큰 틀에서 보면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탄생과 더불어 본격화된 권력과 문학의 결합은 17세기 프랑스의 역사적 맥락에서 좀 더 정교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17세기 프랑스 문학의 정치성을 꾸준히 연구해온 주오는 이 부분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며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17세기 문학이 침묵인가 노예적 순응주의인가의 양자택일의 범주를 초월해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문학의 영역을 구축했다고 주장한다.⁵⁴⁾ 여기서 자율성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율성인가? 그때까지 문학은 고등법원과 대학, 수도회 등 고유의 권한과 특혜, 규범을 지닌 공동체에 지배되었다. 새로운 질서 구축을 목표로 한 군주권은 스스로를 선전하고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의 생산자인 문인들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파리 고등법원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했다. 군주권이 파리 고등법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설립한 의도는 여기에 있다.⁵⁵⁾ 리슐리외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으며 애써 독립성을 보장해주려는 태도를 취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17세기 문인들도 기꺼이 국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16세기의 문인들과

52) C. Jouhaud et H. Merlin, "Mécènes, patrons et clients", p. 359.

53) A. Adam,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au XVII^e siècle* (Albin Michel, [1951]1997), t. 1, p. 143.

54) C. Jouhaud, *Les Pouvoirs de la littérature*. p. 19.

55) *Ibid.* p. 16.

달랐다. 16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롱사르는 귀족이었고 몽테뉴는 법관이었으며 라블레는 의사이자 인문학자였다. 반면 법관이나 인문학자, 성직자와는 달리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고유의 능력을 토대로 정체성을 인정받고 문학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시작한 17세기 문인들에게 국가와의 결합은 선택이 아니라 기회였다. 군주권의 의도가 그들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은 자명했다. 하지만 국가와의 동맹은 적어도 그때까지 그들을 짓눌러온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었다. 따라서 문인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과 문학의 관계는 노예 같은 굴종이 아니라 정치의 문학화, 문학의 정치화가 이루어진 일종의 교환관계였던 것이다.

이렇듯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설립을 통해 권력이 문학을 봉건적 공동체 구조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17세기 문학은 새로운 정치질서와 양립 가능한 영역을 구축했다. 물론 그것은 권력의 시녀가 됨으로써 얻은 상대적 자율성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그 영역은 라틴어와 전문지식 용어의 장벽에 갇힌 대학과 사법부의 전통적 담론에 비해 훨씬 투명하다.⁵⁶⁾ 무엇보다도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하며 지방 편중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사회 범주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군주권이 강화되면서 동일한 언어와 시각을 공유한 문인과 고위 관리, 귀족, 그리고 새로운 교양층의 범주가 확대되고 국가 존립의 이유를 옹호하는 새로운 정치적 논의도 점차 확산되었다.

17세기 새로운 정치 문학과 더불어 형성된 이러한 영역은 국가의 정치적 영역과는 또 다른 의미의 공적 영역이라 부를 만하다. 하버마스가 18세기 영국을 모델로 이론화한 부르주아층의 자유롭고 비판적인 공적 영역과는 달리, 17세기 프랑스의 공적 영역은 정치권력 및 제도의 범주 내에서 형성되었다. 1730년대부터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18세기의 공적 영역의 불씨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영국에서와는 달리 18세기 프랑스의 공적 영역은 군주권과 파리 고등법원의 치열한 정치논쟁이 전개된 고유의 정치문화에서 싹튼 여론에 기반했으니 말이다.⁵⁷⁾ 이런 점에서 프랑스 공적 영역의 역사에 관한 기존의 해석은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17세기의 공적 영역과 18세기의 공적 영역은 단순히 점진적 발전과정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며 성격도 논의 방식도 다르다. 17세기 중

56) C. Jouhaud et H. Merlin, "Mécènes, patrons et clients", p.378.

57) 이영림, 「18세기 프랑스: 종교적 갈등에서 정치적 저항으로」, 『역사학보』 213집(2012. 3), 194-196쪽.

업 프랑스 문학이 새로운 공적 영역에 압도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치문학의 생산자들은 문학 세계의 정점에 위치한 소수에 불과했다. 그 아래에는 문학적 대화를 즐기던 귀족부인들의 살롱과 문인들의 사적 모임이 존재했으며 문인과 귀족의 거대하고 복잡한 세계가 존재했다. 실제로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중심으로 한 공적 후원의 우산에서 제외되어 있던 수많은 문인들은 여전히 귀족의 사적 후원에 의존했다. 그와 동시에 17세기 초 이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파리에서는 출판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미 다양한 장르의 세속문학이 시도되고 도시 엘리트문화에 깊숙이 침투했다.

1648년 프롱드난이 일어나자 이 모든 시도와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정치적 권한을 요구해온 귀족들의 사적 후견제가 정치적 성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기회를 노리던 무명의 문인들도 새로운 공적 영역에 가세했다. 이번에는 리슐리외의 뒤를 이어 권력을 독점한 마자랭이 표적이 되었다. 마자리나드(mazarinades)라 불리는 마자랭 비방문들이 신속하게 쓰이고 파리 시내 도처에 뿌려졌다. 1648년부터 5년간 군주권과 프롱드파의 정치 공방과 인신 공격, 비방이 오가면서 5,000여 편의 팸플릿이 쏟아졌다. 파리를 무대로 한 이러한 말과 글의 홍수 속에서 프랑스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⁵⁸⁾

V. 맺음말

1653년 프롱드난을 진압하고 1661년 친정을 시작한 루이 14세는 잠재적 반란 세력인 귀족들의 후견조직망을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그물망에 통합시켰다. 이러한 사회 지배방식은 학문과 예술, 나아가 출판의 세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었다. 우선 마자리나드의 후유증을 뿌리 뽑기 위해 인쇄업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시도되어 83개의 인쇄소가 33개로 줄어들었다.⁵⁹⁾ 1661년 불시에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푸케의 예처럼 예술세계도 잔혹한 찬탈과 몰수를 통해 왕에게 접수되었다. 문인에 대한 국왕 연금제가 제도화된 것도 그때부터다. 1662년 루이 14세의 총신 콜베르는 샤플랭에게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을 포함한 문인들의 목록을 작성케 했다. 1664년에는 루이 14

58) 이영립, 『프롱드난 시기 파리의 민중의식과 정치문화-마자리나드 분석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55집(1997. 12), 119-144쪽.

59) H.-J. Martin. *Livres, pouvoirs et société*, pp. 678-698.

세가 40명의 문인에게 연금 증서가 든 가족 지갑을 하사하는 엄숙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명실공히 왕의 공식적이고 관료적인 후원체제로 자리매김했다.⁶⁰⁾

볼테르는 루이 14세가 시도한 관료제적 후견제를 유일하게 가치 있는 후원 방식이라고 극찬했다. 『백과전서』의 「문인」(men of letters)에 관한 항목에서 그는 “문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독립심이 강하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문인들은 그들의 독립심을 강화시키기 위해 루이 14세가 설립한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물질적 욕심과 노예근성 때문에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치는 헌정사는 사라졌다”고 언급했던 것이다.⁶¹⁾ 부르주아 출신인 그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자 국왕역사편찬관으로서 누리던 특권에 감응했던 것일까? 굳이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노예성과 비합리성을 꼬집은 디드로가 아니더라도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18세기 내내 문인들에게 원성의 대상이었으니 말이다.

정치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모호하던 문학 후원이 국가의 후원체제로 집중되면서 수많은 메세나들이 자취를 감추었다.⁶²⁾ 반면 1663년 금석학 아카데미의 설립을 계기로 관료적이고 비인신적인 국가 후견제는 다른 예술과 학문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1672년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그 위상을 더욱 굳힐 수 있었다. 1674년에는 사전편찬의 독점권을 부여받았다.⁶³⁾ 1677년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국왕을 찬양하는 전담 기구 역할이 부여되고 그 밖의 모든 정치 담론은 금지되었다. 라신, 부알로, 라브뤼에르, 폰트넬 등 루이 14세 시대 최고의 문인들은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되었으나 왕의 찬가에 몰두하면서 정치적 순응주의자로 전락했다. 이렇듯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설립을 통해 문인들에게 자율성의 영역을 인정해주었던 공적 후원은 루이 14세 치세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1682년 궁정과 정부가 베르사유로 이전하면서 정치권력과 논의의 범주는 궁정 혹은 궁정문화와

60) R. Chartier, “Trajectoires et tensions culturelles de l’Ancien Régime”, p. 353.

61) P. W. Shoemaker, *Powerful Connections*. p. 230.

62) M. Bannister, “The Crisis of Literary Patronage in France, 1643-1655”, *French Studies*, 39, No. 1(1985), pp. 18-30.

63) 그러나 왕의 찬가에 몰두한 나머지 아카데미 프랑세즈는 사전 편찬 작업의 주도권을 빼앗겨 리슐레 사전(1680년), 푸르티에르 사전(1690년)에 뒤이어 1694년에야 비로소 최초로 사전을 편찬했다.

일치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17세기 새로운 정치문학과 함께 성장하던 정치적 논의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엄격한 위계질서와 경직되고 폐쇄적인 베르사유 궁정의 사회성에 숨이 막힌 귀족들과 문인들은 점차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를 추구했다. 17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징조는 1715년 루이 14세의 사망 후 뚜렷해졌다. 파리가 다시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살롱이 활기를 되찾았다. 파리의 살롱에서는 궁정에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가능했다. 그와 더불어 귀족의 사적 후원도 되살아났다. 이렇게 해서 창조와 논쟁, 비판의 자율적인 영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물론 루이 14세 치세에도 문학 후원이 완전히 종식되었던 것은 아니다. 푸케의 거세 이후 외형상 사적 후원은 중단되었으나 루이 14세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허용 받은 콩데 공작이나 오를레앙 공작과 같은 방계왕족들은 자신들의 성에서 후원자 역할을 했다. 문화적 중앙집권화의 그물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문인들도 있었다. 라퐁텐은 군주정의 영광에 봉사하는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며 자유분방한 문학을 고집했고, 라로슈푸코 공작은 베르사유의 엄격함과 편협함을 벗어나 고요한 사색의 세계를 즐기며 회고록 집필에 몰두했으며, 파스칼은 안센주의의 본거지인 포르루아얄 수도원에 은둔해서 종교적 명상에 잠겼다. 18세기가 되자 이처럼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온 자유로운 문학세계는 파리를 비추는 새로운 빛이 되었다. 귀족들은 메세나를 자처하며 문인들을 후원했다. 18세기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부르주아 출신 재정가들이 메세나 대열에 합류하면서 파리의 문학계는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워졌다. 문화에 대한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갈증은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문학과 철학의 탄생에 일조했다.

(수원대학교 사학과)

〈투고일자 2014. 7. 7 심사일자 2014. 7. 22 게재확정일자 2014. 8. 6〉

주제어 :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 후원(Patronage), 정치(Politics), 문학(Literature), 공적 영역(Public Sphere)

〈국문초록〉

정치와 문학화, 문학의 정치화: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중심으로

이영림

1630년대 프랑스에서는 귀족과 왕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한 동시에 문학세계가 급격히 팽창하고 재조직되었다. 살롱을 중심으로 후원 문화가 발달하고 문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지자 1635년 리슐리외는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창설했다. 그것은 절대군주정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문인들을 하나의 제도 속에 통합시킴으로써 공격적인 정치선전정책에 동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한 전략은 루이 14세 시대에 절정에 달했다. 루이 14세 치세에 고전주의라는 예술사조가 완성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카데미 프랑세즈 설립은 권력의 무조건적인 강요의 결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적 치외법권의 영역이 탄생한 것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탄생 과정과 의미를 권력과 문학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이고 미세하게 읽어냄으로써 절대군주정에 대해 좀 더 풍성하고 섬세하게 재검토를 시도했다.

〈Résumé〉**Littérisation de la politique et politisation de la littérature:
mise au point sur la fondation de l'Académie française**

Young-Lim LEE

Pendant les années 1630 en France, la relation entre la noblesse et le roi changeait radicalement, et le monde littéraire grandissait rapidement et était réorganisé. Comme la culture du patronage se développait autour de la Salon et le degré de reconnaissance de 'gens de lettres' s'élevait, Richelieu a fondé l'*Académie française* en 1635. C'est pour le but de mobiliser les gens de lettres pour la politique propagande aggressive en les intégrant dans un système. Cette stratégie culturelle a atteint son paroxysme sous le règne de Louis XIV. Le fait que le classicisme a été achevé dans cette période pourrait être interprété dans le même contexte. Mais la fondation de l'*Académie française* ne peut pas être considérée seulement comme un résultat de la contrainte du pouvoir. Pourtant, cela ne pourrait pas signifier que la sphère extraterritoriale de la littérature était née dans cette période-ci. Cet article a essayé de réexaminer la monarchie absolue de façon ample et subtile par la remise en question de la naissance de l'Académie française et de son implication en détail en lumière de la relation entre le pouvoir et la littérature.

〈Summary〉**Literaturization of Politics, Politicization of Literatur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cadémie française***

Young-Lim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noble and king changed radically, and the literature world grew rapidly and was reorganized for the 1630s in France. As the culture of the patronage developed around Salon and awareness of 'men of letters' became raised, Richelieu established *Académie française* in 1635. That was for the purpose of mobilizing the men of letters for the aggressive political propaganda by integrating them into a system. This cultural strategy reached the climax under the reign of Louis XIV. That the classicism was completed at that time could also be interpreted in the same context. But the establishment of *Académie française* could not be regarded just as the result of the enforcement of the power. Even so, it does not mean that the extraterritorial realm of the literature was born. This article attempted to reexamine the absolute monarchy amply and delicately by reviewing the birth of *Académie française* and its meaning in detail in terms of the relation between power and literature.